

불사조 (不死鳥 · Phoenix)

서울 올림픽의 개막식이 전세계 40억인 앞에 멋지게 펼쳐지던 날, 프랑스의 “르몽드(Le Monde · 世界)”는 서울을 “불사조”에 비유했다. 6·25의 폐허에서 내달아 세계의 대 제전을 훌륭히 치러낸 한국의 역량을 적절히 표현한 찬사라 하겠다.

불사조-피닉스는 고대 이집트인이 가공해 낸 신조(神鳥)이다. 빛나는 진홍과 황금빛 깃털을 갖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이 세상에 단 한마리 뿐인 독수리만한 크기의 이 새는 500년을 산 뒤, 그 생명이 종말에 가까워지면 향기나는 나뭇가지로 등우리를 틀고 거기에 불을 부쳐 죽는다고 한다. 바로, 그 잿더미 속에서 어린 피닉스가 신비로운 재생을 하여, 죽은 시해(屍骸)의 재를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전에 매장한다는 영조(靈鳥)이다.

불사조는 흔히 동양권의 봉황새와 비교되며, 후세 사람들은 불멸의 천재, 절세 미인, 또는 아주 뛰어난 물건을 가리킬 때 이말을 써왔다. 또, 큰 불이나 전화(戰禍)로 잿더미가 되었던 도시가 새로 단장되어 부흥했을 경우에도 그렇다.

르몽드 紙가 칭찬한 서울이 6·25를 배경으로 하였다면 화재를 배경으로 한 불사조도 역사적으로 많다. (표)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사조처럼 우뚝선 세계적인 대도시는 모두 화재로 인한 대 참화를 겪은 바 있다.

(표) 도시화재사

화재명	연도	화재내용 및 화재(話題)
로마 화재	64년	○로마 14구 중 10개구를 전소시킨 8일간의 대 화재 ○습도가 낮은 7월에 발생하여 확산 ○폭군 네로가 시상(詩想)을 얻기 위하여 방화(放火)하였다는 설이 유력 ○기독교인에게 방화죄를 씌워 수많은 순교자 발생 ○기타 로마에는 기원전에 대화재 다수 발생
런던 화재	1666년	○6일간 연소, 건물 13,200동 소실 ○런던브리지 근처의 빵집에서 발화, 건조기후로 확산 ○런던 大火기념비 현존 ○화재이후 보험업자가 최초로 소방대 창설 ○기타 런던에는 1212년, 1924년, 1888년 등 10여 차례의 대화재 발생
모스크바 화재	1812년	○5일간 연소, 도시의 90% 소실 ○나폴레옹 원정군이 모스크바에 입성한 다음날 화재 발생 ○화재원인은 러시아의 초토화작전설이 유력, 한 시민의 실화가 원인이었다고도 함 ○기타 모스크바에는 1753년, 1748년 등 5차례의 대 화재 발생 ○나폴레옹이 패전하여 퇴각하면서 “장엄에서 우스꽝까지는 한 발자국일 뿐이야” 독백 유명
시카고 화재	1871년	○3일간 연소, 건물 17,450동(도시의 1/3 정도) 소진, 250여명 사망 ○이상건조 및 강풍으로 화재 확산 ○비가 내려서 진화
동경 화재	1923년	○지진과 화재가 순차적으로 발생 ○70,000여명 사망, 306,000여호 손실

〈金 東 一 / 연구원〉